

산업화시기 제주 이주자들의 정착과정과 그 특성*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 사례를 중심으로

염미경**

이 논문은 한국의 산업화시기 제주를 이주지로 선택한 이주자들이 제주사회에 정착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그들의 이주 경로 및 동기와 함께 정착과정에서 나타난 집중거주지의 형성과 해체, 그들의 경제 및 사회 활동의 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이 논문의 사례로 제주와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을 선택한 것은 한국의 산업화가 본격화되던 시기 제주는 관광개발과 감귤산업의 성장으로 농촌근대화 열풍이 불었던 지역이었고, 극심한 불황을 겪었던 전라도의 농어촌 사람들에게는 서울, 부산 등과 함께 꿈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땅이었으며, 이 시기 제주 이주자들 중에서 전라도 출신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 문헌연구방법과 1세대 이주자들 및 지역 향우회 관계자들과의 심층면접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산업화시기 제주 이주자들 대부분은 관광개발 붐과 감귤산업의 태동으로 일자리를 찾기 쉽다는 경제적 동기가 제주를 이주지로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였음을 알 수 있다. 정착 초기 이주자들은 동향인 밀집지역을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정착지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자 하였고, 이주자들의 직업 경로 변화과정을 살펴본 결과 이주자들은 정착 초기에는 특별한 기술 없이 일용직노동자로서 전전하다 점차 기술을 익혀 장사나 사업을 하는 등 자신의 형편에 맞게 직업을 선택해갔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들이 지역의 사회적, 정치적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자연 네트워크를 향우회 조직을 통해 구축함으로써 자연을 활용해 이주지에 적응하는 전략을 구사했는데, 이 과정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0-327-B00371).

**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mgyeum@jejunu.ac.kr.

에는 지방자치제 실시라는 정치적 환경 변화라는 요인이 일정하게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단어: 지역 간 인구이동, 이주, 집중거주지, 향우회, 전라도, 제주

I. 서론

정부 차원에서 인구통계가 처음으로 실시된 1955년 제주 인구는 28만 8781명이었으나 1965년에는 41만 1992명으로 40만 명 시대가, 1987년에는 50만 명 시대가 열린 바 있다. 이후 제주 인구는 1987년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유지하다가 2013년 8월 제주는 인구 60만 명 시대를 맞게 된다. 최근 제주 인구가 급증한 것은 국제결혼, 귀농귀촌인구 및 거주 희망 은퇴자 증가와 더불어 관광 개발, IT기업의 이전, 국제학교 유치와 투자 유치에 따른 이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타 지역에서 제주로의 유입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으로(<경향신문> 2013년 8월 12일자), 이 같은 최근의 인구현상을 과거와 구별해 ‘신이민시대’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대체로 지역의 인구 증가는 자연증감에 의한 것보다 타 지역으로부터의 인구이동¹⁾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인구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구이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최은영·구동희·박영실, 2009; 최은영, 2004; 남영우, 1985). 지역 간 인구이동의 관점에서 볼 때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인구유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제주의 인구 증가는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인가? 인구통계 자료에 의하면, 제주는 1960년대 제주개발 붐이 일고 감귤산업의 성장과 함께 이미 인구증가를 경험한 바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49년 제주 인구는 25만 4589명, 1955년에는 28만 8781명으로 집계되었고, 1965년에는 33만 4756명으로 인구 30만 시대가, 1975년에는 41만 1992명으로 40만 시대를, 그리고 1987년에는 50만 5534명으로 50만 시대가 열렸던 것으

1) 일반적으로 인구이동은 두 지역 사이에서 일어나며 단위 지역은 크게 국가와 국가 내 지역의 둘로 나눌 수 있는데(권태환 외, 2006: 283), 이 논문에서는 국가 내 지역 간 이동에 주목한다.

로 확인된다. 이 시기의 제주 인구증가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들로는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증가 및 1960~80년대까지의 제주관광개발 붐과 감귤산업의 성장 등을 든다. 그러면, 당시 산업화와 지역개발 붐 그리고 감귤산업의 성장을 배경으로 제주에 첫 이민시대를 열었던 사람들은 누구이며, 이들의 이주와 정착 과정은 어떠한 양상을 띠었을까? 이 논문은 이러한 기본 질문에서 출발한다.

인구이동은 인구이동의 기원지와 목적지, 두 지역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Peter 외, 2002), 그 시기 제주 이주자들은 왜 수도권과 대도시 및 지방산업도시 대신에 제주를 이주지로 선택했고 이주 및 정착의 과정에는 출신지 요소와 특성이 어떻게 작용했으며 어떤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통해 정착지에 자리매김해왔는가?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현대적인 의미의 제주 이민시대를 열었던 사람들의 이주 동기와 정착과정, 그들의 경제 및 사회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산업화시기 이들의 이주와 정착 경험이 지역사회에 주는 함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고향 땅을 떠나 새로운 땅에서 생활을 시작했던 이주자들의 정착과정은 정착지에서의 범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과정인 동시에 자신들이 만든 지연(地緣)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Portes, 1995). 지역 토박이가 아닌 이주자가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게 되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향 출신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집중거주지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주 이주자들의 초기 정착과정에서도 집중거주지가 형성되고 도시가 발달하면서 해체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들이 제주사회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집중거주지의 형성과 해체에도 주목할 것이다.

II. 연구의 시각과 방법

1. 연구의 시각

최근 초국적 이주와 이주자들에 대한 정책과제나 연구들이 우후죽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의 관심 대상인 산업화시기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나 이주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창기

의 연구(1999)만이 당시 통계자료를 토대로 산업화시기 지역 간 인구이동에 관한 개략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창기의 연구(1999)는 제주를 사례로 해 지역 간 인구이동의 방향과 이동인구의 인구학적 특징을 개략적으로 제시해놓고 있어 당시 제주를 이주지로 선택했던 이주자들의 이주동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제주 이주자들의 이주 동기나 정착과정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에 관심을 둔다.

이 논문의 문제의식과 관련해 지역 간 인구이동을 분석한 주목할 만한 연구가 지역 간 인구이동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한 최은영(2004)과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을 분석한 최은영·구동희·박영실(2009)의 연구이다. 먼저 최은영(2004)의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수도권 인구의 감소 현상의 원인과 과정을 수도권 인구의 절대 감소, 수도권 주변 인구의 증가라는 일반적인 경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주목해 순이동인구에 대한 계량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최은영·구동희·박영실(2009)의 연구는 부산의 인구이동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부산의 인구구조, 지역 내부의 인구이동, 부산과 다른 지역 간 인구이동을 살펴보았는데, 인구이동의 시계열적 변화와 공간적 패턴과 그것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순이동인구의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주로 계량분석에 그쳤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한편, 지역연구에서 지역공간은 단순히 비어있는 용기가 아니라 기존의 사회관계를 반영하며 동시에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생산물로 이해되고 있다(Harvey, 1989). 특정한 사회적 관계는 공간적 관계에 반영되며 그렇게 형성된 공간적 관계는 다음 단계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주거지 분화에 대한 분석은 지역공간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사회학과 지리학에서는 주요 연구주체의 하나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행동은 사회적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공간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재생산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행동은 사회-공간적으로 구조화되며, 이렇게 해서 구조화된 사회-공간적 체계는 분절적이며 장소-특정적으로 작동한다.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공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하며, 따라서 공간은 사람들 간 차이를 만들어낸다(최병두, 2009: 637-638). 따라서 산업화시기 지역 간 이주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인구유출지와 유입지의 공간 변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주자가 특정 공간에 집적하게 되는 것은 그 공간이 이주자가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을 제공할 수 있고, 그 연결망에 접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연결망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자 공동체 내에는 상호 호혜성, 연대성, 동족에 대한 배려, 정보의 네트워크 등 이주자들이 낯선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자원들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은 우선 입지 특수적(location-specific) 특성을 지닌다. 즉 특정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연결망을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하기 쉽지 않다. 또한 한 지역의 연결망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매우 어렵다. 상대적으로 이주자를 위한 연결망이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에 사람들은 이주하여 정착하게 되는 것이다(Faist, 2000). 다른 한편, 이주자들이 정착지에서 밀집지역을 형성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분절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주자들은 대체로 새로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초기에는 대체로 저숙련 단순 노동에 종사하게 되며, 안정적인 직업과 안정적인 주거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박세훈 외, 2009: 50-51; Zukin, 1988). 따라서 이주자들은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면서 이주국가 혹은 이주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족 혹은 동향 집단과 함께 거주하면서 밀집지역을 형성하게 된다. 이주자들이 처한 열악한 경제적 현실과 사회문화적 차별 역시 이주자들로 하여금 집단을 이루게 하는 요인이다. 교외지역의 높은 지가와 차가운 사회적 시선은 결국 이주자들이 자신들만의 공간에 집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주거지 분리는 노동시장의 분절화(segmentation)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난한 국가에서 부유한 국가 혹은 동일 국가 내에서 더 나은 지역으로 이주한 이주자들은 대체로 이주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다. 따라서 초기에는 대개 저숙련 노동에 종사하게 되기 때문에 도시하위계층이라는 새로운 계층을 만들어내게 된다(박세훈 외, 2009: 50-51). 이렇게 해 형성된 이주자 집중 거주지는 낙인이 찍힌 슬럼이 될 수도 있고 활력 있는 관광지가 될 수도 있다. 즉, 이주자 집중 거주지가 오명(stigma)을 지닌 장소일 수 있고 활기차고 쾌적한 장소로서의 이미지를 지닐 수도 있는데, 오늘날 지역공간에서는 이러한 이미지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의 사례인 제주에 정착한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의 경우도 정주 초기에 밀집지역을 형성하였는데,

이들의 밀집지역은 어떻게 형성되고 해체되었으며,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은 어떠했는가?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중심으로 제주에서 이주자 밀집지역의 형성과 해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체로 도시하위계층의 집적지로서 밀집지역의 형성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인데, 이로 인한 주거지 분리(spatial segregation)는 초기 사회학의 연구주제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에도 지역공간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이러한 주거지 분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초기 이주자들은 새로운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향 또는 동족집단과 함께 거주하면서 밀집지역을 형성하게 되기도 하지만 이주자들이 처한 열악한 경제적 현실과 사회문화적 차별 역시 이주자들로 하여금 집단을 이루게 하는 요인이다. 그리고 이주자들은 경제적인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밀집지역을 떠나 보다 나은 주거지에 정착하게 된다.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의 밀집지역 혹은 집중거주지 형성에 대한 연구들로는 각각의 분석대상은 다르지만 노동자 주거공동체에 관한 국내 사례 연구(염미경, 1997, 2000, 2001, 2002; 김준, 2005)와 국외 사례 연구(염미경, 2001, 2002)가 있다. 이외에, 철거민집단이주정착지, 세입자이주단지 등에 대한 연구(홍인옥, 2001, 2002, 2004)가 있을 뿐이다. 이 글은 1960년대 이후의 지역개발 및 산업화에 따른 제주도의 인구변동, 특히 이 시기에 제주로 이주해와 밀집지역을 형성해 살았던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즉 개발 열풍이 한창이던 1960, 70년대 제주해협을 건너 제주로 이주해온 사람들 가운데 다수를 차지한 것이 전라도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은 이주 초기에 제주시²⁾ 지역에서는 제주항 부근 건입동³⁾에, 서귀포시지역에서

2) 2006년부터 제주는 제주시(북제주군 통합)와 서귀포시(남제주군 통합) 체제로 개편되었고, 그 전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논문의 연구 시기가 산업화 시기인 관계로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통합 이전의 행정구역을 지칭함을 밝혀둔다.

3) 제주시 건입동은 제주항이 위치해 있어 제주의 관문이자 각종 문물의 유입과 반출의 거점이 되어 왔던 지역으로 제주의 역사와 문화생활사를 간직한 곳이며, 제주의 행정 및 상권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으나 신시가지 개발 등으로 인해 구 도심권지역의 인구감소와 슬럼화 현상과 함께 침체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 글의 구체적인 연구대상 지역이기도 한 건입동은 2008년 현재 면적 2.53km², 인구 1만807명의 지역으로, 북쪽이 제주해협에 접해 있어 제주해협을 건너 제주항으로 들어온

는 서귀포소방서가 있는 서교동 대도 4로 일대에 밀집지역을 형성해 살았다. 이 논문에서는 제주 정착 이주자들이 이주 초기 거주했던 제주시 건입동에 자리했던 ‘해남촌4)’의 형성과 해체과정과 이들의 제주 정착 초기 경험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사회-공간복합체로서의 밀집지역은 사회관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힘들에 의해 구성되고 변형되고 재조직되는 살아있는 사회관계의 산물이며, 그 내부의 공간적인 구성과 배치, 즉 공간적 관계는 그 안에서 생활하는 이주자의 존재 방식을 규정하기 때문이다(Soja, 1985).

한편, 인구이동은 이동이 처음 생기는 지역인 기원지(origin)와 이동을 해 간 지역인 목표지(destination) 사이에서 일어나므로 인구이동은 일차적으로 기원지와 목표지와의 연관 속에서 설명해야 하며, 인구이동은 기원지의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주로 목표지의 조건이나 환경이 이동의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권태환 외, 2006: 285-286). 따라서 이주를 선택한 사람들의 이주경로와 동기 및 이주지 정착 경험과 이주지사회의 변화를 연동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인구이동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Ravenstein, 1885; Clark and Onaka, 1983; Knox, 1994)은 인구이동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 주택, 생애주기 등을 들었고, 특히 경제적인 이유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다. 한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부터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급속한 인구이동이 이루어졌고, 1970-1991년 사이 서울, 경기, 부산 및 제주만 순인구이동⁵⁾이 증가했는데(김성태·장정호, 1997: 179), 이는 이들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인구가 증

사람들이 부두의 허드렛일을 하면서 머물러 살다가 밀집지역을 형성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 4) 기초자료 조사에 의하면, 1960, 70년대 제주로 들어갔던 제주 이주1세대 호남인들은 제주시의 경우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부근에, 서귀포시의 경우 서귀포 소방서가 있는 서귀포시 서교동 대도4로 일대에 임시 기거를 하게 되면서 이 일대에 판자촌이 한때 만들어졌는데, 일명 ‘해남촌’ 혹은 ‘전라도동산’으로 불리던 곳이다. 이곳은 초창기에는 해남사람들이 많이 거주했던 건은 사실이지만 전라도사람들이 골고루 거주하게 된. 1960, 70년대 서귀포의 해남촌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막일과 보따리장수 등을 하면서 돈을 모아 생활환경이 더 나은 곳으로 이주했고 상당수는 적지 않은 재산을 모으기도 하였다.
- 5) 순인구이동은 유입자 수에서 유출자 수를 차감하여 지역 간 순수한 인구이동을 나타내므로 해당 지역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인구이동에 의한 해당 지역의 인구증감 정도를 알 수 있다(김성태·장정호, 1997: 179).

가했음을 시사해준다. 이 논문에서는 제주지역을 사례로 하여 제주 이주자들의 정착과정과 그 특성을 중심으로 인구이동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2. 연구 대상과 방법

한국의 산업화 시기 지역 간 인구이동의 특성과 정착과정에서의 일련의 특성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제주를 연구대상 지역으로 한 것은 제주가 한국의 산업화 시기 지역 간 인구이동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는 점 때문이었다. 즉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화와 개발과정 속에서 이농이 본격화하던 시기에 제주 는 정부 주도의 관광 개발과 제주 최대 농산물인 감귤산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함으로써 농촌근대화 열풍이 불었던 지역으로, 극심한 불황을 겪었던 전남지역 농 어촌 사람들에게는 서울, 부산과 함께 꿈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땅’이었다는 점에서 산업화에 따른 지역 간 인구이동의 양상과 그 특징을 잘 들여다 볼 수 있는 지역이다(주희춘, 2008: 295-296, 324-331; 염미경·한상희, 2014: 161).

이 논문의 시간적 범위는 1960년대 한국의 산업화가 본격화된 시기부터 현재까지이며, 제주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은 1960년대 이후 제주지역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제주로 이주해 정착한 사람들이다. 해방 이후 제주 이주자는 이북도민을 비롯해 국내 여러 지역 출신자들이 있는데, 특히, 이북도민은 광복 직후 월남민, 한국전쟁 때 제주에 온 피난민, 1·4후 후퇴 때 온 피난 등 세 부류가 있고 이들 중에 제주에 정착한 1세대는 2013년 기준 약 8천 9백 명 정도이지만 이들은 이 논문의 문제의식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어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⁶⁾.

특히,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제주로 이주한 사람들 중에는 호남 출신, 영남 출신, 충청 출신이 많고, 이들 중에서 호남 출신, 그것도 전라도 출신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⁷⁾ 따라서 이 논문은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을 주요 연구대상

6) 해방 이후 제주 이주자들에 대해서는 문순덕·염미경(2014)을 참조바람.

7)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제주 이주자들 중 호남인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대략 호남향우회 소속 회원이 5만 명 정도이므로 그 가족까지 합하면 제주지역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수준에 이른다(제주시 호남향우회 관계자와의 심층면접).

으로 하였다. 이 시기에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이 유독 많았던 것은 당시 전라도의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국사회는 1967년부터 1978년까지 12년 동안 1967년, 1968년, 1976년, 1977년, 1978년 등 다섯 차례 한해(旱害)를 입었다. 1967년 8, 9월 동안에는 호남지역에서, 1968년 6, 7월에는 호남과 영남에서 예년 강우량의 20-30% 정도밖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는 60년 만에 겪는 가뭄이었다(한해극복지편찬위원회, 1978: 35; 주희춘, 2008: 314). 이처럼 큰 가뭄을 겪으면서 고향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1960-70년대 어려웠던 시절, 서울, 부산과 함께 전라도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땅’이었던 곳이 제주였다(주희춘, 2008).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문헌자료와 심층면접자료⁸⁾가 활용되었는데, 문헌자료에는 향우회 발간 정기간행물과 단행본 및 통계자료, 행정기관의 자료, 인터넷 검색자료 등이 포함되었고 심층면접은 향우회 관계자들과 1세대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조사대상자로서 이주자를 능동적인 행위자로 보는데, 1세대 이주자들과의 심층면접에서는 이들의 출생과 가정, 성장기의 문화적 배경과 교육, 이주 전과 이주 후의 노동경험과 직업 경로와 변화, 결혼과 가족, 제주로의 이주 동기과 경로 및 이주지에서의 생활경험, 출생지로서 고향과 이주지의 의미, 회고

특히, 재(在)서귀포시 전남도민회의 경우 전남 출신은 11개 사군 조직이 있을 정도로 많으며, 이들 중에는 단순노무직 종사자와 영세 상인들이 많다. 영남인의 제주 이주는 호남인에 비해 늦고 제주에 정착하면서 밀집지역을 형성하고 살지도 않았다. 제주 거주 영남인의 수는 영남도민회 추산 회원 수만 5천 명 정도이며 제주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호남인에 비해 크지 않다(영남도민회 관계자와의 심층면접). 그 외에 제주사회 거주하고 있는 이주 제주인은 서울경기향우회 500명, 전북도민회 450명, 강원도민회 300명, 충청향우회 200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다(제주특별자치도청 제공). 그리고 제주도 연합도민회가 1995년도에 조직되었는데, 강원도, 서울, 영남, 전남, 전북, 충청도민회 순으로 각 도민회장이 제주도 연합도민회장을 1년 임기로 맡는다(재서귀포시 전남도민회 관계자와 인터뷰 결과).

- 8) 심층면접자료는 여러 가지 정황에 따른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엄밀한 객관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종종 의심되어오기도 했지만 그 엄밀한 진위성 여부를 떠나 개별화되고 영역화된 수치와 형식화된 문서, 각각의 물리적 형상물, 그리고 공식적 사건기록들 사이의 빈 공간을 이어 주면서 그러한 각 영역과 사건들이 사람들의 실제 일상생활과 감정과 생애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인지되며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밝힐 수 있는 역사적 자료가 될 수 있다.

와 전망 등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들 자료 중 이 논문에서는 이주 동기와 경로 및 정착지 적응과정에서 겪은 생활경험에 대한 자료와 함께 주거공간이나 생업공간 또는 지역공간의 형성과 변화 양상 및 개인과 공동체의 기억자료가 활용되었다. 특히 공동체의 기억자료는 개인만의 독특하고 배타적인 경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경험하고 공유하는 기억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의미가 있다.

이 논문의 주요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는 2011년 7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향우회 조직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필요한 경우 그 이후에도 수시로 이루어졌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1960년대 전후부터 1970년대 초반에 제주에 온 사람들로,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⁹⁾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향우회 관계자들 또는 심층면접대상자와 친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이들이 소속된 향우회가 주관한 각종 정기총회와 체육대회 행사 등에 참여하였으며, 심층면접대상자 선정 기준은 첫째, 이주1세대 집단의 출생지를 고려하였다. 제주개발이 시작되면서 제주로 이주한 호남인들 중에서 전남 해남과 진도 출신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기 때문에(제주시 호남향우회와 서귀포시 전남향우회 관계자들과의 심층면접) 이들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둘째, 제주 이주 후 일용노동자로서의 경험을 갖고 있거나 해남촌이라 지칭되는 집중거주지(판자촌) 거주 경험자를 심층면접대상자에 포함시켰으며, 제주개발 초기 이주자로서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의 제주지역 정착과정 전체와 정치세력화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주자들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하여 선정된 주요 심층면접 대상자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9) 눈덩이표집이란 산위에서 작은 눈덩이를 굴러 보내면, 내려가면서 눈이 점점 뭉쳐서 커지는 것에 비유한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소수의 사례를 조사한 뒤 이들로부터 추가적 사례를 계속 확보해 나가는 방법을 말한다. 이 논문에서도 향우회 관계자를 통해 일부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들로부터 추가 대상자를 확보해나가는 방법을 택했다.

〈표 1〉 주요 심층면접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	주요 특성
박**	1941년생, 전남 해남 출신, 1974년 이주, 서귀포시 거주, 임대농사와일 노동직에 종사, 서귀포시 향우회 임원 역임 및 초창기 호남인의 정치세력화에 노력
이**	1941년생, 전남 장흥 출신, 1967년 이주, 제주시 거주, 직물 도·소매업 종사 및 제주시 향우회의 조직화에 기여, 제주시 ‘해남촌’의 모습 증언
최**1	1940생, 전남 완도 출신, 1958년 이주, 서귀포시 거주, 재서귀포시 전남도민회와 향우회 임원 역임(재서귀포시 전남도민회 발기 회원)
김**	1950년생, 전남 해남 출신, 1976년 이주, 서귀포시 거주, 식당 경영
허**	1948년생, 전남 진도 출신, 1971년 이주, 제주시 거주, 유흥업 종사 경험, 제주시 향우회의 조직화에 기여, 향우회 임원 역임, 유흥업 종사 경험
공**	1937년생, 전남 완도 출신, 1973년 이주, 서귀포시 거주, 단순 노무직(돌 깨기, 감귤 밭 구덩이 파기), 돌담 쌓기 기술자, 감귤 도·소매업 등에 종사(서귀포에 정착한 전라도 출신 이주자의 전형적인 직업 변천 경로 거침)
최**2	1949년생, 광주 출신, 1969년 이주, 서귀포시 거주, 이주 초기 남편과 ‘해남촌’ 거주 경험, 일용직 노동자를 거쳐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서 호텔 종업원으로 직업 전환
문**	1955년생, 전남 해남 출신, 1969년 이주, 서귀포시 거주, 보일러공으로 정착한 부친과 함께 보일러공에서 시작해 건설노동자(미장업)로 전환해 현재까지 미장업에 종사, 이주 1.5세대로 이주 초기 이주1세대 집중거주지였던 ‘해남촌’ 거주 경험

이외에, 다수 전남 출신 제주 이주자들과 제주시와 서귀포 향우회 조직 관계자들과의 심층면접자료와 1980년대 이전 제주로 이주한 1세대 이주민들에 대한 조사결과(문순덕·염미경, 2014)¹⁰⁾를 활용하였다.

Ⅲ. 산업화시기 제주 인구성장의 배경과 특성

1. 제주 인구성장의 배경

제주개발은 이러한 한국사회의 경제개발과 발맞추어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의 제주개발은 제주를 국제적 관광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반 조성에 중

10) 문순덕·염미경(2014)에서는 제주 이주 1세대들 17명과 향우회 관계자 20명과의 심층면접자료를 수집해 분석했는데, 자료수집은 2014년 3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이루어졌다.

점을 두었고 지역의 발전보다는 한국의 산업화와 자본축적의 보완수단의 성격이 강했으며 관광을 중심으로 하였다. 제주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은 국제자유지역 조성, 관광개발, 산업개발이라는 세 가지의 큰 틀 속에서 추진되었으며¹¹⁾,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계획이 수립되어 집행되거나 유보되었다. 국제자유지역 조성은 1963년 자유항 지정 구상을 시발로 하여 1975년 ‘특정자유지역 개발구상’, 1983년 국제자유지역 조성을 중심으로 한 종합개발계획으로 계속 제기되어 왔다(이상철, 1998: 104-105). 제주개발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가 제주개발을 계획해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제정되어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부터였다. 이 법에 따라 건설부는 1964년에 ‘제주도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개발의 기본방향을 관광과 1차 산업을 병행·발전시키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데 두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정부투자의 과중한 부담 등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실제로 시행되지 못해 지면계획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향후 중앙정부의 제주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일정한 의의가 있다.

1966년에는 역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제주 전역이 특정 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으로써 특정지역계획이 작성되었다. 이 계획은 기본 방향을 국가적 차원에서 상대적 낙후지역인 제주의 경제·사회적 성장을 뒷받침해 줄 국토개발 사업의 우선순위 반영과 지역 내 부존자원 개발에 의한 지역격차의 시정에 두었으며 1967-1996년까지 30년 동안의 개발 및 정비목표를 관광지 조성, 농업개발, 수산개발, 수자원개발, 교통시설 개선 등 5개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1970년대 이후 관광개발의 거점화가 제주개발의 기본 방향이 되면서 제주는 관광주도형으로 육성 발전시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데 두어졌고, 1973년 청와대 관광기획단 주도로 ‘제주관광종합개발계획(1973-1981)’이

11) 이것은 제주가 주관하고 국토개발연구원이 총괄해 수립한 1983년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의 주요 내용이었으며 이 안은 1982년에서 2001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며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83년의 안은 국내외 개발 여건이 불투명한 데다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에 의해 수정되게 된다. 1984년에 경제장관협의회에서 국제자유지역 조성은 보류되고 국민관광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관광지로 개발하기로 개발방향이 조정되었다. 이후 건설부 주관 하에 국토개발연구원이 전담하여 계획을 대폭 수정한 것이 1985년에 확정된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다(이상철, 1998: 107-108).

수립되면서 지역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이 계획은 제주를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목표 하에 관광기반시설 재정비, 중문관광단지 개발, 감귤·축산·토산품 등 관광 관련 산업 육성 등 관광자원 개발계획 및 투자계획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제주 관광개발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김태보, 1989; 이상철, 1995). 1970년대의 제주 지역개발의 기본 방향은 관광개발의 거점화로 하고, 모든 산업을 관광주도형으로 육성 발전시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데 두어졌고, 이것은 1973년 청와대 관광기획단에 의해 수립된 ‘제주도관광종합개발계획(1973-1982)’에서 구체화되었다. 한편, 1972년에는 이러한 특정지역계획의 보조적 성격을 지닌 제주도종합개발10개년계획(1972-1981)이 수립되었는데, 이 계획에서 개발의 기본방향을 관광자원의 적극적인 개발에 두어 제주를 국제적 관광지로 조성하려는 취지를 확고히 하였지만 막대한 투자재원 확보문제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한편, 1963년 제주도건설개발연구위원회가 설치돼 1964년 건설부 주관으로 특정지역 지정 겸 건설종합개발계획을 위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1966년부터 제주가 특정지역으로 지정돼 산업이 개발되고 용수, 도로, 동력 등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었으며 1970년에는 ‘제주도종합개발10개년계획’이 수립돼 제주를 국제적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지역사업을 국가적 우선순위에 반영하게 되었다. 1973년에는 ‘제주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돼 9년간에 걸쳐 집중적인 개발사업이 진행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각 항구의 물동량이 폭증했다. 제주항을 통해 이뤄진 제주~목포, 제주~부산 간 여객선 여객 수송규모는 1972년 31만5천 명에서 1979년 71만5천 명으로 늘어났고, 화물수송은 1972년 9만6천800톤에서 1979년 16만6천 톤으로 증가했다(제주지방해운항만청, 1979; 주희춘, 2008: 333-334). 이 기간 동안 농업구조도 변화되어 1961년 총 재배면적의 94.1%를 차지해 자급적 농업을 대변하던 식량작물의 비중이 1982년까지 46.7%로 급감했다. 식량작물의 생산량도 85.8%에서 31.7%로 떨어졌다. 대신 특용작물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나 감귤의 재배면적이 1961년 0.3%에서 1982년 21.6%로 늘었고 생산량도 0.3%에서 47.9%로 급증했다. 즉 1961년 서귀포를 중심으로 63정보에 불과했던 감귤밭은 1969년 3천126정보로 늘어났고 1972년도에는 6천955정보로 폭증했다. 1975년에는 1만930ha, 1984년에는 1만6천900ha가 됐고 2004년에는 2만2천ha로 증가했다

(주희춘, 2008: 335).

이처럼 1970년대의 제주개발정책은 국제관광지를 조성한다는 관광개발에 편향되어 전개되었고, 관광산업 중심의 제주지역개발은 1980년대 초 정권이 바뀌면서 급류를 타기 시작한다. 1981년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이 수립되고,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침에 따라 1980년대 제주지역개발이 추진되게 되었고, 1985년에는 ‘제2차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85-1991)’을 수립하고 개발 기조를 부존자원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성장을 촉진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특히, 1985년 건설부 주관의 ‘특정지역제주도종합개발계획’(1985-91)과 건설부 계획과의 연계 하에 제주도 당국 주관의 (제1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85-1991)을 확정지으면서(제주노동상담소, 1992: 50) 제주개발정책은 국민관광지화를 기치로 내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된다. 이를 배경으로 제주는 개발 붐이 일었고 감귤산업이 성장하면서 노동력을 필요로 했으며, 이렇게 하여 1960-70년대 제주의 유입인구는 증가하게 된다¹²⁾.

2. 제주 인구의 특성

인구는 일차적으로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를 의미하지만 그 사회의 자연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 제 조건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산물이다. 이와 동시에 인구는 과거의 인구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인구현상은 역사적 현상이기도 하다. 특히, 제주가 경험한 역사적 사건들도 현재의 제주 인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일제강점기의 대량 해외이출(특히 일본)과 1948년 4·3사건, 한국전쟁 기간의 군인 및 피

12) 1965년도 제주 인구는 32만 명 정도였으나(제주도, 1970) 관광개발 및 건설사업 등으로 유입인구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제주는 1970-75년까지 유출 인구가 많았는데(이창기, 1999), 전라도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로 들어올 때 제주사람들은 제주를 떠났던 것이다. 물론, 제주를 떠난 사람들도 고향에서 별다른 희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1970-75년 사이에 제주지역을 떠났던 3만4천48명의 사람들 중 서울로 떠난 사람이 1만5천600여 명으로 전체 전출자의 46%에 달했다. 부산이 3천686명으로 10.82%였다(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7). 즉 제주 토박이들이 제주를 떠난 뒤에 남은 제주 토박이들과 다른 지역에서 온 이주자들이 제주지역개발을 담당한 셈이다.

난민 이동과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와 지역개발사업은 제주의 인구변동을 촉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현상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다(이창기, 1998: 15-16). 특히, 산업화와 지역개발은 제주가 인구 50만 시대를 맞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인구이동은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시기별로 변화가 심하고 이동의 양과 방향에 있어서도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제주의 인구이동도 정부의 지역 개발사업, 산업화와 도시화 등에 영향을 받아 시기별로 이동추세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이창기, 1999: 85). 유입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제주 인구성장률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 초 제주의 인구이동에 대해서는 통계자료가 없어 그 추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당시의 출산력 수준을 고려할 때 1960-66년의 제주 순유입인구는 약 7천7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이창기, 1999: 40). 1965년 이후 5년간 총 유입 인구가 1만5천 명 정도이던 것이 1970년 이후에는 2만 명을 넘어섰고 1985년 이후에는 3만 명을 돌파하게 된다. 유출인구에 있어서도 1960년대 후반 1만2천 명 정도에서 1970년 이후에는 대체로 3만 명을 초과하였다. 즉, 1970-75년의 제주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75%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출산율 수준이 높지 않았고 대량 이출초과 현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성장률이 상승했다는 것은 유입인구 초과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이창기, 1999: 39, 40, 42-43, 89). 따라서 총 이동량도 197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960년대 후반 5년간의 총 이동량이 2만7천 명 정도이던 것이 1970년 이후에는 5만 명, 1985년 이후에는 6만 명을 넘어섰다. 1960년대까지 제주의 인구이동이 전쟁이나 개발사업의 추진 등 특수 상황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1970년대 이후는 꾸준히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유출요인) 등의 외적 요인과 제주 농업의 특수성과 관광개발(유입요인) 등의 내적 요인에 의해 제주 인구의 유동성이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창기, 1999: 89).

1960년대 이후 제주의 출생지별 인구구조를 통해 제주 인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1960년 95.4%, 1970년 93.7%, 1980년 88.8%, 1985년 86.9%, 1990년 84.9%로 제주 출생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시기 제주 이외 지역에서 출생한 제주지역민의 출생지 분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광주·전남지역 출신이 가장 많다는 점인데, 특히 1970년과 1980년에는 광주·전남지역 출신이 타 지역 출생자의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출생자 다음으로는 부산·경남지

역과 서울지역 출생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2> 참조). 이 시기 광주·전남지역 출생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제주지역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부족한 노동력을 지리적으로 가까운 광주·전남지역에서 충원한 결과로 보이며, 이는 이 시기 제주 유입인구 중에서 단순노무직과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았던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이창기, 1999: 91-93).

<표 2> 제주지 이외 지역 출생 제주지역민의 출생지 분포

(단위: %)

연도	타도출생자계 (실수)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기타
1960	100.0 (12,912)	4.2	3.2	1.1	0.8	1.4	2.4	29.9	2.1	8.0	46.9
1970	100.0 (26,803)	6.8	4.0	2.4	1.8	4.4	6.0	42.2	5.4	11.9	15.1
1980	100.0 (51,017)	8.8	3.9	3.4	2.3	4.9	5.4	42.9	5.9	12.0	10.6
1985	100.0 (64,018)	11.4	5.5	3.3	2.4	5.2	5.7	37.0	7.0	15.0	7.6
1990	100.0 (76,356)	11.7	6.1	3.5	2.2	5.8	5.2	34.8	7.9	17.3	5.5
1995	100.0 (80,314)	14.2	8.1	3.7	2.4	5.1	5.1	29.3	7.7	18.3	6.1

주: 기타에는 북한 출생자와 외국 및 미상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이창기(1999: 92)에서 재인용(각 년도 국제조사 보고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제주 유입인구는 광주·전남과 부산·경남 그리고 서울지역에서 주로 유입되고 있다. 이 세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인구는 전체 유입인구의 약 7할을 차지했는데, 그 중에서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1980년 전후부터는 이러한 유입인구의 지역분포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광주·전남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인구 비중이 급격히 떨어지는 대신에 서울지역이나 부산·경남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즉 1990년대 초반에는 광주·전남지역 출신 비율이 10% 정도 떨어지고, 대신에 인천·경기지역이 15%를 상회하면서 제주 인구의 주요 유입지로 부상한다(이창기, 1999: 95).

〈표 3〉 제주 유입인구의 지역분포

(단위: %)

연도	타도출생자계 (실수)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기타 (외국)
1965-70	100.0 (14,925)	15.7	5.7	3.1	1.5	4.3	5.4	36.8	8.5	16.7	2.3
1970-75	100.0 (20,056)	19.9	6.7	3.5	1.4	3.1	4.5	38.1	4.5	16.6	1.7
1975-80	100.0 (21,474)	23.4	5.2	3.0	1.2	4.0	3.4	28.5	6.5	16.4	8.4
1980-85	100.0 (25,421)	30.6	8.8	3.0	1.3	3.6	3.5	17.4	6.7	22.5	2.6
1985-90	100.0 (29,107)	29.0	10.3	3.6	1.1	4.2	3.1	15.9	7.5	23.8	1.5
1990-95	100.0 (32,124)	28.4	15.3	2.3	1.5	2.6	3.3	10.3	5.9	25.5	4.9

자료: 이창기(1999: 95)에서 재인용(각 년도 국세조사 보고서).

이와 관련해, 제주 유입인구의 지역분포와 유출인구의 지역분포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70년대 초반까지 제주로의 전입인구의 40% 정도를 차지하던 광주전남지역이 제주 유출인구의 전출지로서는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체 유출인구 중에서 광주전남지역으로 유출한 제주 인구는 약 10% 또는 그 이하이다. 이러한 경향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는데(이창기, 1999: 96), 이를 통해 광주전남지역은 제주의 노동력 공급처로서 기능하였을 뿐 전출지로서의 기능은 매우 약했음을 알 수 있다.

IV.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의 이주와 정착과정

1. 이주 경로와 동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부터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급속한 인구가동이 이루어졌고 서울, 경기, 부산 및 제주를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했는데, 제주는 1960년대 이후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인구성장률은 전국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였다. 1960-66년의 제주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3.10%로 전국의 인구성장률 2.79%보다 0.31% 높게 나타난다. 이 기간 제주의 인구증가는 고

출생률의 지속 이외에 제주지역 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른 유입 인구의 초과를 그 원인으로 든다(이창기, 1999: 39). 그러면, 제주개발 붐이 일면서 제주를 이주지로 선택한 사람들의 이주 동기는 무엇이며, 그 경로는 어떠했을까? 다음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주는 국가 중심부에서 가장 원거리에 있는 최고주변부로서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개발과정에서 지역변동을 경험했으며, 제주 출생자들에게는 떠나고 싶은 곳이었던 반면, 개발이 시작되면서 전라도 등지의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땅으로 인식되었다. 여기에는 지리적 조건이 작용하였는데, 제주는 총면적 1,847.78km²로, 대한민국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제주해협을 사이에 두고 목포와는 154km, 부산과는 304km, 완도와는 104km 떨어져 있다. 목포는 전라도 서남부지역 사람들이 제주로 가기 위해 집결했던 집결지이기도 했는데, 전라도 서남부지역 사람들이 제주로 들어가는 뱃길은 목포-벽파진-추자도-제주 노선이 유일했다.

제주와 목포를 오가는 배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철선이 선을 보인 것은 1948년 해방 이후였다. 즉 해방 당시 제주-목포 간 항로에는 광영호, 춘광호, 남신호, 경영호, 신광호 등이 운항되고 있었으나 이 선박들은 모두 소형 목선이었다. 목포-제주 간 최초의 철선은 1948년부터 1954년까지 목포-제주-부산을 운행했던 '이리호'와 '평택호'였고, 이 코스를 '무지개항로'라고 했다. 이때 제주-목포 구간을 3일마다 왕복하던 신광호는 1953년 7월에 제주-여수 간 항로를 취항하였다(황경수, 2004: 263-264; 제주도, 1993: 1108). 제주상공회의소(2000)에 의하면, 당시 목포-제주노선에 가장 먼저 취항한 것은 1955년 1월 8일부터 항해를 시작한 '황영호'였다. 그 다음으로는 1958년 9월 6일 '화양호'가 운항을 시작했다. 1957년도 배 해상운임은 목포-제주 간이 3등 1천 224환, 2등 1천835환이었다(제주상공회의소, 2000: 255). 또한 1963년 8월 13일에 '가야호'가 선을 보였다.

이 당시만 해도 해상교통을 담당한 것은 선박이었는데, 당시 선박은 작은 데다 시설이 낡고 속력이 느린 관계로 기상영향을 많이 받아 결항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으나 1963년 8월 12일에 가야호를 시작으로 1968년 4월에는 안성호, 1969년에는 삼화호, 1970년에는 나일호, 1973년에는 동원호가 잇따라 취항함으로써 제주-목포 간 1일 2발제 운항이 실현되었는데, 당시 운항시간은 8시간이었다(황경수, 2004: 264). 현재는 완도-제주 간 뱃길이 일반화됐지만 완도-제주 간 정기여객선이

처음 취향한 것은 1979년 4월 17일의 일이었다(제주지방항만청 자료). 그 이전에 강진, 해남, 완도, 장흥, 영암지역 사람들이 제주배를 타기 위해서는 벽파진이나 목포로 가야 했다. 전남 진도군 벽파진에서 배를 타면 완도 앞바다를 거쳐 거의 직선 항로로 추자도에 이르고 제주에 가장 빨리 도착했다. 특히, 벽파진은 당시 제주나 부산으로 가는 뱃길의 중심지였다. 보성이나 순천 등 전남지역 동부사람들은 기차를 타고 목포로 가서 배를 타는 경우가 많았고, 구례나 곡성, 담양사람들도 버스를 이용해 목포로 가서 배에 오르는 게 일반적인 경로였다(문순덕·염미경, 2014: 15; 주희춘, 2008: 296, 301-302; 제주지방해운항만청, 1989). 전남 진도군 벽파진에서 배를 타면 완도 앞바다를 거쳐 거의 직선항로로 추자도에 이르고 제주에 가장 빨리 도착했다. 특히, 근대 들어 벽파진은 제주나 부산으로 가는 뱃길의 중심지였다(주희춘, 2008: 301-302).

다음에서는 조사대상자들과의 심층면접자료를 중심으로 제주로의 이주경로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진도 벽파진을 통해 제주항을 통해 제주에 온 허** 씨와 최**1 씨는 당시 진도 벽파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벽파진에 갔더니 대합실이랄 것도 없고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모여드니까 거기 보면 작은 판잣집 같은 그런 데서 표 끊어주고 또 거기에는 소줏집들과 간이식당들 몇 개가 있었어요. 거기는 시골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나도 거기 있었어요. 배가 3, 4일 못 뜰 때가 있어 부근에 조그만 하숙집들이 있었어요. 여인숙 같은 하숙집 말이예요. 거기서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잤어요. 당시 500원 주면 거기서 잘 수 있었어요. 파출소도 하나 있었어요. 지금 가보니까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옛날 전성기 시절을 생각해보면 쓸쓸해 보이고 황량해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진짜 전성기였죠. 사람들이 엄청 많았으니까... 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승선했습니다. 당시 제주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은 배편 밖에 없었으니까. 지금도 벽파항으로 가는 마린보이라는 배 한 척이 있어요. 오후 2시 넘어서 있어요. 진도를 경유해서 목포로 가고, 목포를 경유해서 진도에서 제주에 들어오고... 그 당시 벽파진에서 제주까지는 약 7시간 정도 걸렸어요. 목포에서 온다면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걸려 진도 벽파항에 온 뒤에 벽파항에서 제주까지 약 7시간 정도 배를 타고 와야 했어요. 그때 제가 배 탔을 때 그 배는 굉장히 큰 배였고 신식 배였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제주항에 도착했어요.”(허** 씨와의 심층면접)

“완도에서 진도 벽파진까지 가서 타고 왔지요. 황영호 타고 왔어요. 오다가 파도가 세 추자도에 들어가서 고구마와 툷 얻어먹고 그 다음 날 출발해 제주에 왔죠. 벽파진에는 부둣가에

하숙집에 몇 군데 있었어요. 완도에서 제주 가는 사람, 강진 쪽에서 오는 사람 모두 진도 벽파진에 모여서 하숙집에서 하숙비만 주면 밥을 같이 주니까 거기서 먹고 있다가 목포에서 배가 오면 입항 못하니까 종선으로 가 배를 탑니다. 그때 당시는 엔진도 없는 노 젓는 종선으로 간 다음 배에 승선했지요. 황영호에.”(최**1 씨와의 심층면접)

이처럼 당시 진도 벽파항은 제주에 가려는 전라도 사람들의 집결지이자 주요 경유지로서의 역할을 했고, 이렇게 하여 제주항에 도착한 이들은 저변층 일용노동자로서 제주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1967년 목포에서 가야호를 타고 제주에 온 전라도 출신의 한 이주자는 이주 경로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때는 다들 배타고 왔었죠. 목포나 진도에서 주로 배 타고 왔는데, 야간 항해였죠. 목포에서 오후에 출항을 하면 진도 벽파진을 경유해 와야 했는데, 거기서 제주항까지 7-8시간 걸리므로 새벽 2-3시 되어야 제주항에 도착해요. 서귀포는 부산 간 항오였기 때문에 전라도에서는 제주항으로 주로 들어왔어요. 진도 고군면 벽파진은 목포와 제주를 오가는 배가 하루에 한 번씩 기항했는데, 40여 년 전 벽파진에는 여인숙도 있었고 식당도 있었어요. 저는 1965년에 목포항에서 한라호나 가야호를 타고 와야 했는데, 그때 저는 가야호를 타고 왔어요. 한라호는 목선이요 가야호는 철선이에요. 당시 배에 60명 정도 탔을 거예요.”(이** 씨와의 심층면접)

이와 같이 전라도 서남부지역 사람들이 제주로 가는 뱃길은 목포-벽파진(진도)-추자도-제주 노선이 유일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제주 이주자들의 이주 동기는 경제적 사정, 사회적 범법 행위자, 그리고 투자 등이었는데(문순덕·염미경, 2014), 이 논문의 조사대상자들의 이주 동기도 이와 별반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시기 제주 이주자들의 대부분이 전라도 출신자들이었고 문순덕·염미경(2014)의 조사대상자들 다수가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이었던 데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 대부분은 최극빈 상태에서 이주지로 제주를 선택한 경우였고, 이들은 제주에 와서 생존을 위해 가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제주에 정착해나갔다. 이주자들 중에는 제주시에 정착할 수 없어 제주항에서 서귀포시까지 가서 정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씨, 공** 씨, 그리고 최**2 씨와의 심층면접 내용에서 어느 정도 확인

할 수 있다.

“제주항에 도착해 정착할 데가 없어 걸어서 서귀포까지 간 사람들도 많았어요. 당시 뱃삯만 들고 제주에 온 전라도 출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고향에서 빚을 많이 져 제주에 온 사람들도 많았어요.”(이** 씨와의 심층면접)

“옛날에는 제주지역도 못살았어요. 다 살기 힘들었던 때야. 다 어려웠던 시절이었었는데 사업 하다 실패해 온 사람도 있고 이래저래 한 두 사람 제주로 오면서 어떻게 연결되어 온 사람도 있고 친척으로 연결해 온 사람도 있고. 그냥 혼자서 제주에 와 성공한 사람도 있고. 지금은 다들 성공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공** 씨와의 심층면접)

“남편이 시댁 돈 가져다가 목포에서 사기 당해 다 날려버렸어요. 남편이 먼저 제주 왔다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목포로 해서는 안성호와 가야호라는 배가 있더라고요. 올 때는 안성호 타고 왔어요. 목포에서 안성호 타고 제주시 부두로 왔어요. 하루 종일 배타고 왔어요. 제주에 도착하니 캄캄한 밤이더라고요. 제주 오니까 부둣가에 아주 작은 집이 있어 거기서 사람이 나와서 자기 집에 가면 잠잘 곳 있고 밥도 싸고 하다고 해 그분들 집에서 하룻밤 보냈는데, 제주시 부둣가로 판자촌 같은 집이었어요. 거기서 마이크로버스 타고 서귀포로 왔어요. 한번인가 남편이 아파 돈 가지러 해남 갔는데 그때 버스 타고 제주시에 가서 부두에서 안성호 타고 벽파항에서 내려 해남 가는 차 타고 친정에 가서 돈 조금 갖고 왔어요. 가야호보다 안성호가 더 컸던 것 같아요.”(최**2 씨와의 심층면접)

이 시기 제주로 이주한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은 무일푼으로 제주에 와 일용직에서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즉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은 2-3년 연속 흉년이 들면서 생활이 어려워 제주에 온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처음에는 배편 이동이 상대적으로 쉬웠던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이주자가 늘어나게 된다. 제주 이주 동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적 빈곤으로 일자리를 찾아온 사람, 실직이나 사업실패¹³⁾, 고향을 떠나야 하는 개인적 이유 등이 있었음을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알 수 있다. 특히, 1960-70년대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은 출신지와 제주 간 거리가 가까워서, 1960년대 이후 제주지역개발과 감귤산업 성장으로

13) 제주로 먼저 이주한 가족이 있어 1976년 제주에 들어온 김** 씨의 경우는 서귀포지역에 정착했는데, 구멍가게 해 성공해 서울로 가 자영업 하다가 사업실패 후 다시 제주로 재이주한 경우다.

인해 제주에 일거리가 많아서 이주하게 된 사례, 1960년대 제주로 이주하기 전에는 고향에서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 하다가 단신으로 제주에 정착한 사례¹⁴⁾, 개인적으로 고향에서 살기 힘든 일이 있어 무작정 멀리 떨어진 제주로 이주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목포 등 전남지역에서는 제주에 가면 일자리도 있고 노동을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먼저 제주에 이주해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어 쉽게 들어온 사례도 있다. 이들이 이주할 당시만 해도 호남보다는 제주의 경기가 좋다고 알려져 일거리를 찾아 온 것을 알 수 있었다(문순덕·염미경, 2014; 72).

이와 관련해 제주시 호남향우회 간부를 역임했던 허** 씨는 처음에는 호남지역과 제주 간 교류는 거의 없었으나 지역에서 한 두 사람이 제주로 왔고 이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줄줄이 (제주로) 오게 되면서 전라도 출신자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허** 씨와의 심층면접). 실제로 이 논문의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 포함되었는데, 최**1 씨는 한국전쟁 때 큰댁이 한국전쟁 때 제주시로 피난 와 있었고 사촌형제가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제주행 배를 타서 제주시로 오게 된 경우이고, 이** 씨는 먼저 제주에 정착한 뒤 여동생이 남편 직장 때문에 제주에 와 있어 쉽게 제주에 와 정착한 경우다. 또한 공** 씨는 목포에서 안성호 타고 제주에 왔는데, 1970년대 초반 제주는 감귤산업이 성장하고 있던 시기인 관계로 제주에서 일용직 노동자로서 생활을 시작한 경우로, 남동생 네가 서귀포지역으로 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 이주를 선택하게 된 경우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제주에 온 이주자들은 구체적인 이주 동기는 다소 달랐지만 경제적 동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했다. 전라도 출신 1세대 이주자들 다수는 농어촌 출신자들이었고, 출신지를 떠날 당시 출신지는 농사를 짓고 있었고, 흉년으로 먹고살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당시 전라도의 농어촌지역에서는 제주가 부지런히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여겨졌고, 개발과 감귤산업 등으로 인해 일거리가 많은 땅으로 알려져 있었다¹⁵⁾(심층면접 결

14) 박** 씨는 단신으로 제주에 와 제주에서 우연히 동향인을 만나 정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목포에서 가야호 타고 제주부두에서 내려 택시 타서 서귀포에 내렸는데, 거기서 초등학교 선배를 우연히 만나 정착하게 되었어요.”(박** 씨와의 심층면접).

15) 1990년대까지도 전남지역에서는 겨울철에 밀감 따는 일을 하기 위해 제주로 농업노동 인구의 이동이 빈번했다. 이 시기 전남지역은 농한기에 해당되므로 제주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일하러

과 종합). 초기 이주자들은 제주에 정착하면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으며 타향인 제주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길이 제주에 안착하는 최선의 방법이였다.

2. 정착 초기 집중거주지 '해남촌'의 형성과 해체

제주는 1960년대 들어서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는다. 1960-70년대 전라도의 농어촌지역이 극심한 불황을 겪었다면 정부의 개발정책이 추진되면서 제주는 희망의 땅이 되기 시작하는데, 제주지역 곳곳에서 개발 붐이 일어났고 감귤산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하였다(주희춘, 2008: 324-331). 따라서 노동력이 필요했지만 제주는 섬 지역이라는 특성 상 인구는 매우 한정적이었는데 1965년도 제주의 인구는 32만 명에 불과했다(제주도, 1970). 이후 정부 주도의 관광개발과 특작농업의 성공, 1960-70년대 이농이 본격화하면서 제주는 서울, 부산 등과 함께 전라도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¹⁶⁾. 더욱이 정부가 제주를 국제관광지로 개발하면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항만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었기 때문에 곳곳에 막노동을 할 수 있는 일터가 생겼고 제주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항은 10여년 이상 날품일터가 끊이질 않았다. 이러한 막노동 할 수 있는 일터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찾아간 이들은 전라도 이주자들이었다, 서귀포에서 재배된 감귤이 육지로 운송되기 위해서는 짐꾼이 필요했고 전라도 이주자들 상당수가 제주항 주변에 모여 살면서 매일 지게꾼 일을 했다(주희춘, 2008: 336).

따라서 1960, 70년대 제주항 주변에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의 밀집지역이 생겨나게 되는데, 1960년대 이후 이농현상에 의해 전남지역에서 농사짓기에 실패하여 바다를 건너온 전라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정착하면서 제주항 주변에 만들어진

들어왔다. 즉 전라도 출신으로 선과장을 운영하거나 밀감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과 연락해 일하러 들어오기도 했다(문순탁·염미경, 2014: 74).

16) “제주에 가면 일단 먹고 살 게 많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한 사람이 제주로 들어가면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다시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형태였습니다.”(진도군 고군면 벽과진항 여객선 대합실에서 상점을 운영했던 김 할머니의 이야기; 주희춘, 2008: 295-296).

마을이 해남촌¹⁷⁾이다. 이는 전남 해남 출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겨우 2, 3평의 판잣집은 처음 한 두 채로 시작되더니 조금씩 늘어나 200여 채까지 빼곡히 들어섰다. 제주항에 도착해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한 전남사람들이 막일거리가 있는 부두와 가까운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해남촌은 제주항과 근접해 있는 관계로 이주자의 반 이상이 제주항을 생활 터전으로 삼았으며 빈민촌의 성격을 가졌다. 이곳은 처음에 제주항 부두 옆에 형성되기 시작했고 숫자가 늘어나면서 1970년대 들어 더욱 확대되었는데, 해남촌은 영구적인 정착지라기보다는 경제적 상향이동을 위해 거쳐 가는 지역이었다. 제주시에 있었던 해남촌 위치를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제주시 해남촌의 위치



17) 제주에는 해남촌이라 불리던 곳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존재했었다. 제주시의 경우 부두 부근에 조성되었고, 서귀포의 경우 현재는 서귀포시민회관이 있어 많은 지역민들이 왕래하는 곳이지만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적한 곳이었고 빈민가나 마천가지였다. 서귀포 해남촌은 ‘전라도동산’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해남촌은 196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호남사람들이 하나 둘 들어가 살기 시작했고 초창기에는 해남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였지만 여타 전라도사람들이 함께 거주하게 된다(주희춘, 2008: 343-344). 현재 제주지역 해남촌은 거의 해체된 것이나 다름없고 1960-70년대 해남촌에 살던 사람들 다수는 일용직으로 돈을 모아 해남촌을 떠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제주시 해남촌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해남촌은 주민의 대다수가 동향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응집력이 매우 강했으며, 다수는 단순 직종인 노무업이나 운수업 등에 종사하였다. 주민구성원들은 대체로 젊고 거주 기간도 짧은 편이었다. 해남으로 귀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들은 해남촌에 살면서 출신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과 친선을 도모하는 지연 공동체를 강화시켜나갔다¹⁸⁾. 해남촌에 거주했던 이들은 일거리를 찾아 제주시내와 서귀포, 성산포, 조천읍 등 조금 이름이 알려진 지역으로 가서 머슴살이부터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다. 모든 공동체는 특정 공간에 대해 자신들의 기억과 해석을 통해 고유한 정서적 태도를 갖고 있다. 심층면접자료를 중심으로 제주항 부근에 자리했던 해남촌의 상황과 해체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처음에 제주 왔던 분들은 해남촌에 많이 살았어요. 해남촌은 1960년대부터 형성되었어요. 제일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당시 동문로터리에 지게꾼과 마차꾼들이 많았어요. 이곳은 부두에서 가까운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었지요. 그때 선박 물류작업 하는 것도 마차꾼이나 지게꾼들이 했어요. 그래서 부두는 지게, 수레, 마차 등의 집결 장소였고... 해남촌에 살았던 분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지금은 해남촌에 아파트가 들어서 그 흔적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중략) 해남촌 분위기는 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안 좋았어요. 다들 어려운 시기였고... 창피한 얘기지만 집들이 다 붙어있었고, 개별 화장실 같은 건 없었어요. 공동화장실을 함께 사용했어요. 길가에다 화장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면 냄새가 났죠. 전부 재래식 화장실이었고. 1970년대 초반까지도 그랬어요. 1980년대 접어들면서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주위에 아파트들이 생기고, 신제주도 생기고, 옛날에 해남촌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촌(시골) 정도가 아니고... 생활이 말이 아니었다니까요. 당시는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지요. 지금은 그곳에 빌딩이 들어서 있지요. 그때 길이 꼬불꼬불한 샛길이었어. 그곳에 여인숙도 있었는데 이제는 흔적이 없어. 길이 전부 뚫려서...”(이** 씨와의 심층면접).

“해남촌 사셨던 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때 해남촌에 살던 분들은 거기 오래 살진 않았어요. 2-3년 또는 3-4년 살다가 돈 벌어서 해남촌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중략) 해남촌에 살다가 용담동으로 이사 가신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해남촌은 기반 잡기 위해 잠

18) 제주시 호남향우회의 전신인 ‘호남동지회’를 조직하여 전라도민 간의 친선과 회원 간의 상부상조를 통해 제주지역에서 뿌리내리고자 하였다(이** 씨와의 심층면접).

시 머물렀던 피난촌 같은 곳이었어요. 아픈 부분이고, 초기 애환이 서려있는 장소죠.”(허** 씨와의 심층면접).

“처음에 제주에 온 사람들은 부두와 가까운 해남촌 쪽에 살려고 했는데, 해남촌이 배 부두에서 가까우니 일감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해남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갈 곳이 없으니 신산부락 쪽에 살았어요. 처음엔 해남촌에 들어가지 못해 변두리에 있다가 들어갔어요. 저는 건축현장에서 노동일을 시작했어요. (중략) 해남촌에서는 부두가 가까워서 1970년대 초반에 해남촌에 어마어마하게 판자집들이 증가했어요. 다들 육지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제주에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별어먹고 살기에는 부두 쪽이 나았으니까. 저도 1958년 제주시에 도착해 사촌형님 댁이 있던 해남촌 부근 신산부락으로 갔어요. 이곳도 판자집들을 짓고 살았죠. 이쪽에 살던 사람들은 사정이 좋지 않아서 거의 모두가 노동일해서 먹고 살아야 했어요. 제가 2, 3개월 동안 형님 댁에 있으면서 지켜보니까 거의 모두가 해남이나 완도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이 진도나 강진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해남촌이나 신산마루(신산부락)는 전부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 터를 잡은 곳이에요. 부두 근처인 해남촌에 제일 많이 살았고, 일도2동 신산부락에도 약 30여 가구가 살았어요. 형님은 신산부락에 잠시 살다가 해남촌 쪽에 집을 마련해 내려가서 살았어요. 신산부락에서 해남촌으로 내려간 것은 해남촌 쪽으로 더 살기가 나아서라기보다는 부두에서 가까워 일감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신산부락 거주지는 해남촌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잠시 머물렀던 곳인 셈이죠. 신산부락은 해남촌으로 들어갈 곳이 없었으니까 신산부락 쪽에 있었던 거죠.”(최**1 씨와의 심층면접)

그러나 해남촌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생활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제주가 관광지로서 본격 개발되면서 제주도 당국 차원에서 해남촌 거주자들의 이주계획이 수립되고 이주명령이 내려진다(주희춘, 2008: 341-342). 1차 이주는 1970년을 전후해 이루어졌다. 제주도 당국은 이들에게 일정한 이주비용을 보상해주고 지금의 공설운동장 주변으로 거처를 옮기도록 했고 1980년 전후 진행된 2차 이주 때는 제주시 화북동 주변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많았다. 즉, 1979년 신산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 계획이 확정되면서 1980년대 중반 해남촌 주민들은 일도2동에 있는 속칭 ‘신산마루’지역으로 이주했고, 이들은 제주사회에 적응하고 경제적인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남촌을 벗어나 다양한 지역으로 흩어져 이주하게 된다(주희춘, 2008: 337-343; 황석규, 1985). 현재 과거 ‘해남촌’ 자리는 인가와 아파트단지, 체육공원, 주차장 등이 들어서 있고 주택 몇 가구만 당시 흔적으로 보여줄 뿐¹⁹⁾ 과거의 해남촌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체로 이주자들의 주거공동체는 높은 지역성, 강한 공동의 유대감, 빈번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공동체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강력한 지역공동체이다. 제주 정착 초기에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이 형성한 집단거주지 해남촌도 이러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었다. 이후 삶의 여건 변화나 지역개발로 인해 이 공간은 해체되는 과정을 겪었지만 이들은 경제적·정치적·사회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해나가게 된다.

3. 지역사회의 주체화 과정과 경제사회적 활동

1) 경제활동과 생업의 변화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 대다수는 산업화초기 제주사회의 하층민으로서 제주에서의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들이 제주에서 어떻게 정착해 생활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주자들이 종사한 분야나 생업의 변화를 통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제주 이주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거주지를 이동하였고 일자리가 안정되면 그곳에 정주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제주 이주자들은 배를 타고 제주에 들어왔는데 연고지에 따라 제주시나 서귀포시 지역에 정착하였다. 이주자들 중에는 고향을 떠나 처음에는 서울 등 대도시에서 거주하다가 생활이 나아지지 않거나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제주로 이주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은 처음부터 서귀포시로 이주한 경우가 많고 제주와 아무런 연고가 없어도 서귀포시를 선택해 이주한 경우도 많았다. 무작정 제주로 이주한 다음 동향 출신을 만나게 되면 이들이 형편에 맞게 도와주었다(문순덕·염미경, 2014: 75).

이 논문의 조사대상자들의 일자리 및 직업 변화과정을 살펴본 결과, 이주 초기에는 일용직 농업노동자나 막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당시 서귀포

19) 필자가 만난 해남촌 인근에 사는 제주 토박이들도 이 일대가 해남촌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해남촌 자리에는 고령의 전라도 출신 이주자가 사는 몇 가구의 주택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시는 과수원 조성과 밀감농사가 한창이던 때였으므로 이 시기 제주 이주자들은 과수원지기, 건축현장의 막노동 등 소위 3D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른 한편, 건설업 등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건설 경기가 좋을 때는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농업(밀감농사)에 일용직으로 종사하는 투잡(two jobs)이 일반적이었다.

“전라도 지역에 한해(旱害)가 겹치면서 전라도 사람들이 제주에 많이 왔어요. 이들은 제주에 와 3D 업종에 주로 종사했어요. 제일 힘든 일이 농약 하는 일이었는데 호남사람들이 일을 했어요.”(이** 씨와의 심층면접)

한편, 실제로 제주시에 정착하느냐 아니면 서귀포시에 정착하느냐에 따라 경제 활동 분야나 직업의 변화 경로가 달랐다. 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산업구조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시 지역에 정착하는 이주자들은 개발 붐에 의해 건설 경기가 호황이었고, 감귤산업이 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물류 관련 일이 많아 제주항에서 하역 등 막노동에 종사하다가 상업 등 자영업으로 전환하거나 관광업, 그리고 1980년대까지 직물업 경기가 좋아 이 분야 종사자나 건설현장 노동일을 했던 사람들도 많았다.

실제로 현재 제주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동문시장은 제주 구(舊) 상권의 한 축인데, 동문시장 상인들의 대다수는 전라도 출신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 씨와의 심층면접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 상권의 한 축은 호남사람들이 잡고 있어요. 동문시장 가면 어물전이나 정육점, 채소가 거의 모두 호남사람들이 잡고 있어요. 서귀포의 경우는 감귤 농사와 농장 소유자들이 많고, 감귤 선과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옛날에 우리가 어려웠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보자고 이를 간 거예요. 제주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은 호남사람들이 도맡아서 하다시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주 상권의 기반을 구축한 거죠. 제주는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이 다 들어와 있으나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합해도 호남만 못합니다.”(이** 씨와의 심층면접)

이** 씨 또한 제주 이주 후 제주시에서 직물점을 친척과 동업 형태로 경영했는데, 당시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이 많이 종사했던 직물업계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

이 증언한다.

“1960년대 직물 수요가 많았어요. 호황이었죠. 당시 제주에 직물점이 칠성통에 하나밖에 없었고 우리가 2호였어요. 1호는 전복사람이 운영하는 ‘**상회’이고, 우리는 ‘**직물’ 상호를 갖고 순수한 양복, 양장기지만을 취급했어요. 그 외 육지에서 양복기지 보따리장사들이 있었죠. 이 시기에 직물업은 매우 호황이었죠. 특히 1970년대는 최고의 호황을 누렸는데, 양복기지, 양장 붐이 있었고 교복산업이 발전하면서 학생복지와 교련복지로 호황이었어요. 우린 교복지까지 취급했어요. 그때 제주에서 양복점, 맞춤코너, 양장점이 늘어났어요. 1970년대 중반 제주에 120여 군데 정도 되었어요. 그때는 기성복이 안 나왔을 때라서 전부 맞춤이었어요.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기성복이 나왔죠. 그 전엔 전부 맞춤이었어요. 당시에는 명절 선물로 양복을 많이 했어요. 당시 맞춤센터 또는 **라는 호남인들이 많이 운영했죠. 당시 이 분야가 호황이다 보니 호남인들이 제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 제주로 많이 왔죠. 1979년 ‘**직물’에서 제가 독립해 동문로터리 쪽에 ‘**직물’을 운영했어요. 그러나 기성복이 보편화되면서 이 분야도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1988년, 1990년 즈음에 그만 두었어요. 정부 방침이 학생복지, 교련복지, 학생모자 폐지로 갔기 때문에. 그때 어마어마한 재고로 손해를 보았어요. 교련복, 교복지를 없애버리니까 남은 재고 팔 데가 없어 손해 많이 보았어요. 회사로부터 이미 돈 주고 사와 버려 반품도 안 되었지요. 제주는 1982-1983년부터 이렇게 되기 시작했죠. 1982년부터 정부 정책이 시작되어서 어찌어찌 소비시키다가 1989년도에 그만 둔 거죠. 참, 제주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기성복이 나오기 시작했고, 양복점, 양장점 등도 줄어들게 되었죠. 직물은 1970년대 완전 피크였는데...”(이** 씨와의 심층면접)

제주시지역에 정착하게 되면서 초창기 관광업에서 시작해 제주의 유흥업계를 주도했던 허** 씨의 제주 정착사를 통해 제주의 관광개발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제주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변화가에 데려다주라고 했더니 칠성통에 데려다줘 시내를 둘러보다가 목포에서 알던 선배를 만나게 되고 그 선배가 바에서 일했는데, 여행사에 관광객 모집해주고 관광객 데리고 행사하다보니 돈을 좀 모았어요. 그때만 해도 제주는 전부 자연관광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학생들 100-200명 팀을 하게 되고 3년 하니 돈을 많이 모았어요. 초기 관광업인 셈이죠. 망위로 근무하다가 제대한 후 다시 제주로 돌아왔어요. 1970년대 중반이었죠. 이때는 배가 아니라 비행기 타고 제주에 왔어요. 이때는 관광객 붐이 일었는데 유흥업을 하게 되었죠. 1980년대 신제주라는 신홍도시 발전을 이끌어간 것은 유흥업이었어요. 이렇게 신제주는 유흥가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유흥업 하다가 1990년대 중반에 유흥업을 접었죠.”(허** 씨와의 심층면접)

이에 반해 서귀포시 지역에 정착하는 이주자들은 농업노동자로서 또는 과수원이 대규모로 조성될 때 일용직노동자로 시작했다. 즉 감귤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과수원 조성 관련 잡일을 하다가 과수원 지기나 감귤 도·소매업, 그리고 감귤농장을 하거나 감귤 선과장을 운영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보일러공이나 미장일, 설비와 목수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대해 심층면접 내용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귀포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은 돌 깨는 일, 담 쌓는 돌 작업 등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좀 더 안정적인 일을 하기 위해 과수원 머슴 생활을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밭감농사 짓거나 농장 관리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박** 씨와의 심층면접).

“서귀포에 정착한 전라도 사람들 중에 우리와 같이 감귤장사로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된 사람들도 많고 감귤 선과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공** 씨와의 심층면접)

“1970년대 밭감농사에 뛰어들어든 사람들은 모두 성공했어요. 남의 밭이라도 과수원 경작했던 사람들은 모두 성공했어요. 노동일 쪽 건축업 계통이라든지 이런 쪽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먹고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 돈도 좀 벌었어요. 보편적으로 호남사람들은 건축계통에서도 설비와 목수 계통이 많았어요. 1970년대에서 1980년대로 가면서는 비닐하우스가 많아졌어요. 서귀포 해남촌에 살았던 사람들은 과수원 쪽에 많이 종사했어요. 밭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1969년, 1970년대에는 과수원이 한참 번창할 때였으니까요. 그때 당시 돌담 쌓는 것, 과수원 돌담 쌓는 것, 그리고 밭감나무 심는 일이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건축 계통에서 일했기 때문에 제가 건축일을 하게 된 셈이지요. 과수원 조성, 과수원 돌담 쌓는 것들이 많았지요.”(문** 씨와의 심층면접)

온돌방 공사 기술자인 부친과 함께 제주에 와 부친 일을 돕다가 온돌방 공사 기술자로서 일하다가 미장기술자로서 건축노동자로서 살아온 문** 씨와의 심층면접 내용에 의하면, 제주는 1970년대 이전에는 나무로 불을 때는 방식이다가 1970년대 초 연탄방으로 교체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은 1970년대 중반 연탄보일러, 그리고 기름보일러 순으로 변화되어 왔는데, 그 변화를 주도한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이었다. 문** 씨도 연탄보일러 교체 시기까지 이 분야에 종사하다가 이후 미장일로 전환해 과수원 물탱크, 과수원 집 축조 시 미장일을 맡았던 미장 기술자로서 생활을 한 경우이다.

“전라도 사람들은 구두땀이, 옛장사, 농장일, 미장일, 노동일, 옷장사 등 다양했어요. 제서귀포시 전남도민회 고문으로 있는 1세대 분은 동문로터리에서 머리에 수건 두르고 리어카 끌었어요. 지금은 서귀포 유지 소리 듣고 살고 있습니다만. 눈물 나려고 합니다. 다들 참 힘들게 살았어요. 우리 고향사람들. 예전 서귀포 해남촌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은 다 잘 살아요. 다 먹고 살만큼 살고 있어요. (중략) 초기에 제주에 온 분들은 배고플 때니까 밥 훔쳐 먹기도 했어요. 제주 토박이들이 ‘육지 것들’, ‘전라도 것들’ 했죠. 1960년대 오신 분들은 다들 힘들었어요. 참 불쌍했죠. 1세대들은 많이 돌아가셨고 고향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김** 씨와의 심층면접)

한편, 최**1 씨의 서귀포시 지역 정착사를 통해 서귀포의 지역개발과정에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최**1 씨와의 심층인터뷰 내용을 통해서는 1960년대 서귀포지역에 전라도 출신 이주자가 급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58년 제주로 이주해 제주 해군 민간후생사업의 일환으로 군용트럭 운전 등의 일을 하면서 부산 등지에서도 근무하다가 1961년 5.16 후 제주 재입도해 건축업을 시작했어요. 5.16 도로 포장공사(약 3년) 끝나고, 1966년도에는 수막리부터 가시리, 서흥리까지 간에 수도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이때부터 내가 현장을 책임지고 나가게 되었어요. 1966년 말 1967년경에는 서귀포 포도당 공장 건립 시작, 이때에는 전라도 사람들이 많아져 전부 전라도 사람들로 채워졌어. 이때쯤 전라도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루 인원에 100명이 넘는데, 전부 전라도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전남 해남, 완도, 진도, 장흥, 강진 쪽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때 이들 지역에서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어 논바닥이 갈라져서 벼농사를 지을 수 없어 배고프니까 제주에 큰 공사가 벌어졌다고 해서 모두 제주에 내려온 거죠. 와서 바로 천치연 위 냇가에다 천막, 비닐 천막을 쳤어요. 그래서 제주로 많이 오게 된 것이죠.”(최**1 씨와의 심층면접)

한편, 전라도 출신 여성 이주자들의 직업은 대체로 과수원 조성 시 구덩이파기, 돌 줍기와 돌담 쌓기, 과수원 일, 시장에서 농산물 장사, 공사장 인부 등 주로 일용직 노동자로서의 생활이 일반적이었다. 이 논문의 조사대상자인 최**2 씨의 경우는 1960년대 말에 제주에 온 이후 이러한 직업 경로를 거쳐 온 대표적인 인물이다. 최**2 씨는 남편과 제주에 온 이후 이러한 과정을 두루 거친 후 서귀포지역에 호텔들이 조성되면서 K호텔 주방 일 하는 비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해 1990년 정규직 사원이 되었고 퇴직 후 현재까지 K호텔 용역 일을 해오고 있다.

당시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의 일부는 ‘돈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제주에 와서 초기 적응과정을 거쳤는데, 이에 대해서는 최**2 씨와의 심층면접 내용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난다.

“1960년대 말 제주에 와서 돌담 쌓는 돌도 깨고 밀감나무 심으려고 구덩이 파는 일 등도 해서 당시 돈으로 십 만원 벌었어요. 그때는 돈 벌면 돈다발 묶어 벽장에 넣어두었다가 돈 빌려주라는 사람 있으면 빌려주고 조금씩 받아서 생활했어요. 누가 제게 땅 사놓으라고 했어요. 제주가 관광지가 되면 큰돈이 될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해 안 샀어요. 우리는 그렇게 제주에서 살았어요. 그때 돈 빌려서 과수원 산 사람들은 지금 부자로 살아요.”(최**2 씨와의 심층면접)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제주 이주자들은 특별한 기술 없이 제주에 있는 친지를 찾아 이주한 다음, 기술을 익혀 장사나 사업을 하는 등 자신의 형편에 맞게 직업을 선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정착한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의 직업의 변화 경로를 정리하면, 우선 지역개발 붐이 일던 당시 건설(일용직)노동자로 일하거나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것²⁰⁾으로, 도로 건설과 건축현장의 단순노동자나 온돌방 설비와 미장일, 목수일 등 건설노동자로서 살아온 경우다. 문** 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다른 경로는 직물업의 호황 시기에 양복점, 양장점, 맞춤코너 등을 운영하는 길을 걸어온 집단의 경우로 주로 제주시에 정착한 초기 이주자들의 경우다. 1970-80년대 초반에 제주지역에는 양복점, 양장점, 맞춤코너 등이 약 120여 군데였으며 다수가 호남사람들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씨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 양복점을 운영했던 이** 씨에 의하면, “이 분야 종사자가 전부 호남사람들이어서 제가 사업하기 좋았죠. 동문시장은 당시 오페수가 흐르는 곳이었는데 1970년대 초쯤 복개해 상가들이 3-4층으로 지어졌어요. 현대식 건물이 아니라 아주 열악했지만 상점이 수백 개 되었을 거예요. 가게 안에 방이 있는 형태였죠. 호남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현재도 물론 많지만.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중반까지가 피크였어요. 그 가까이에 해남촌이 있었죠.”라고 말한

20) 1960년대 제주로 이주한 고(故) 고** 씨는 지역 토착 건설회사를 운영하였고 제주시 호남향우회 발기인으로서 대표까지 지냈으며 1980년대 말 국회의원까지 당선된 인물이다.

다(이** 씨와의 심층면접).

이외에 제주에서 관광산업이 성장하면서 초기 관광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다가 여행을 운영하거나 유흥업 분야로 진출하게 된 경로가 있는데, 허** 씨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일용직 농업노동자로서 시작해 농장 관리, 감귤장사나 과수원이거나 감귤 선과장을 운영하게 된 경우를 또 하나의 직업 경로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주로 서귀포시에 정착한 초기 이주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경로이다. 전형적인 예는 공** 씨의 경우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 씨의 경우는 감귤산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중에 제주에 들어와 별다른 기술 없이 돌을 깨거나 깨서 돌담 쌓고 구덩이 파 감귤묘목 심는 일용직 농업노동자로서 제주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으며, 단신으로 제주에 왔다가 이후 가족을 오게 한 경우로 이 분야 기술자가 되면서 생활이 안정된 경우에 속한다. 공** 씨의 부인 또한 과수원 일용직 농업노동자나 건설현장 인부로 일하면서 감귤장사를 시작해 서귀포시에 안착하게 된 경우다.

이처럼 산업화시기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은 제주사회의 하층민으로서 제주에서의 생활을 시작해 제주개발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토박이들로부터 낮게 평가되어오다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역의 정치적 주체로서 재규정되기 시작해 지역의 한 주체로서 제주사회에 깊숙이 편입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다음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지연(地緣) 네트워크의 형성과 사회·정치활동

제주시 호남향우회는 1950년대 후반 ‘호남친목회’로 출발하여 1969년 재창립과정을 거쳐 2015년에 이르고 있다. 제주이주 호남인은 3대까지 12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문순덕·염미경, 2014: 38), 제주시 호남향우회는 제주에 거주하는 전라도 청년(45세 이하)이거나 호남인 2세가 가입할 수 있다. 제주시 호남향우회에는 22개 지역(시군) 향우회가 조직되어 있고 산하 동향우회는 10개가 조직되어 있다. 또한 전도(全道)연합회는 제주시 호남향우회와 전북도민회, 재서귀포시 전남도민회(이하 전남도민회)와 전북도민회 연합으로 1987년에 결성되었다.²¹⁾

한편, 서귀포시지역에는 전남도민회, 영남도민회, 전북도민회, 강원도민회, 충

청향우회, 서울경기도민회 등 6개 조직이 있으며, 이 도민회들이 연대해 1987년에 서귀포시 연합도민회를 발족시킨 바 있다. 이 논문의 연구대상인 전남도민회는 각 사군민 향우회를 연합하여 운영하는 조직으로 2000년대 초만 해도 회원만 750명 정도였으나 현재 회원이 줄어 500명 정도이다. 제주 이주 1세대들의 전남도민회 가입 비율은 높은 데 반해 1.5세대와 2세대의 비율은 낮다(전남도민회 관계자와의 심층면접). 전남도민회는 8개 시·군·면 향우회, 부녀회, 청년회로 구성되어 있다²²⁾.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화시기 제주로 이주한 전라도 사람들은 이주 이후 농장일, 목수일, 건축현장의 노동일 등 모두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어렵게 생활했고 그러다보니 제주토박이들은 전라도 사람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문순덕·염미경, 2014). 제주사회에서 전라도 이주자들의 위상이 다소 나아지게 된 것은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부터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민회 관계자인 김** 씨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호남 사람들이 제주사람들 눈에 보이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전라도 사람들 ... 손가락질 많이 받았죠. 각자 흩어져 있으니까. 각자 먹고 살기 힘들더니가 못치질 못했었죠. 막걸리 한잔 사주거나 밥 한 끼 사주면 여당으로 다 넘어갔지. 다들 힘들게 살 때니까. 전남도민회가 조직화되고 특히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해남향우회, 즉 해남군민회가 결성되면서 일정한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고 해남군과 일정한 연계망을 가지면서 서귀포지역에서 세(勢)가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라도 사람이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전남도민회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김** 씨와의 심층면접)

최근 제주시와 서귀포시 향우회 차원의 지방선거 개입 방식은 과거와 비교해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과거 향우회 차원의 특정 정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에서 1.5세대 또는 2세대가 향우회의 주축이 되면서 과거 명분 중심에서 실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대 후반에 제주에 온 전남도민회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21) 이들 향우회의 주요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순덕·염미경(2014: 39-43)을 참조바람.

22) 전남도민회의 주요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순덕·염미경(2014: 52-57)을 참조바람.

“특정 정당에 일반적으로 몰아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우리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국회의원 당선되면 끝이더라고요. 과거 우리 선배님들처럼 그냥 밀어주고 대우 받지 못하는 행위는 저는 안할 생각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꾸준히 함께 갈 수 있는 분을 선택하렵니다. 과거에는 선거 때만 되면 도민회가 그 흐름에 경도되었는데, 지금은 도민회 집행부와 하부 향우회 회장들에게까지도 특정 정당에 대한 최종지지 결정이 날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주시 호남향우회와도 노선이 다를 때가 있어요. 저희의 경우 절대 뭉쳐서 가지 않습니다. 내실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으니까요.”(2012년 3월 9일, 전남도민회 관계자와의 심층면접).

이처럼 최근 제주시 호남향우회나 재서귀포시 전남도민회를 이끌고 있는 세대는 1세대가 아니라 1.5 또는 2세대이다. 이들은 1세대 집행부와는 확연히 다른 정치노선을 갖는 경향이 있다. 과거 향우회 또는 전남도민회 간부를 했던 박** 씨, 이** 씨, 그리고 허** 씨 등은 과거 향우회나 전남도민회의 정치노선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목포에서 평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 활동을 했어요. 당시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가 가장 큰 목표였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나오던 선거 때문에 이곳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 작년 도지사 선거 때 많은 전라도사람들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전신) 후보 지지운동을 한 것으로 알아요. 나는 절대 반대였죠. 향우회 차원에서 한나라당 두 후보를 중심으로 둘로 나뉘었죠. 아무리 한나라당 후보가 똑똑해도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이지요. 정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전에는 그 후보가 깨끗해야 하죠.”(박** 씨와의 심층면접)

“1988년 제주시 호남향우회 간부를 역임했던 고** 씨가 현** 씨와 경쟁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죠. 호남인들 표 100퍼센트가 당락을 좌우했어요. 그때 우리 향우회 임원들은 선거전에 본격 돌입하면서 고** 씨한테 커피 한잔 못 얻어먹고 선거운동 했어요. 우리가 돈 내서 말이에요. 같은 고향 사람이라서. 물론 그 분 조부가 전남 담양으로 나갔지만 제주출신이어 제주 고씨들이 푹푹 뭉쳐 당선된 거죠. 우리 호남인들이 푹푹 뭉쳤고... 또한 그 분이 제주에서는 가장 큰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니 그 임직원들과 하청업자들까지 합하면... 그 분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 기분이 좋아서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우리 호남인은 가족이나 식구니까 우리한테는 안 해도 되니까. 고향 사람이니까 당연한 것이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호남향우회는 힘도 생겼고 진짜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요즘 호남사람들은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죽기 살기로 선거운동 하지는 않아요. 과거

우리 때는 죽기 살기로 운동했었는데... 호남은 민주당 텃밭이잖아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 후보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해도 될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 때마다 운동했던 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될 때도 전도 호남인들이 뿔뿔 뿜쳤어요. (중략) 하기가 지금은 변하고 있죠. 제주 속에서 호남인이 살면서 제주를 발전시키는 데 동참해야 해요. 그래야 이방인 취급 안 받고 잘 수 있어요.”(이** 씨와의 심층면접)

“김대중 대통령 당선을 위해 당시 호남향우회는 모든 걸 했어요. 난리 났었죠. 그때 밀감철에 12만 명 정도가 제주에 들어왔는데 밀감 따는 아주머니들을 쫓아 다니면서 고향 가서 투표하라고 했어요. 우리 회에서 여비까지 주고 배표 사줄 테니 투표하러 육지 나가라고 했을 정도예요. (중략) 지방자치제 선거 실시 이후부터 호남향우회의 위상이 확 달라졌어요. 지금은 누가 지사 후보로 나가든지 호남향우회를 방문합니다. 예전에는 호남향우회 활동을 서로 안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다들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커졌으니까 그런 거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호남향우회의 입지가 강화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사람을 향우회까지 물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어요.”(허** 씨와의 심층면접)

제주에서 전라도 출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거치거나 현재 맡고 있는 의원으로는 고(故) 고** 국회의원, 박**1 의원, 비례대표 최** 의원, 제주시의 박**2 의원(신안향우회 소속), 그리고 서귀포시의 위** 의원 등이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 향우회는 전라도 출신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압력집단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호남향우회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거구 때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따라서 그 대신에 압력집단 역할은 할 수 있어요. 특히, 제주시의 경우 요즘은 호남인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대신에 압력집단 역할은 할 수 있어요.”(제주시 호남향우회 전 간부, 2010. 6. 22. 심층면접).

최근 전남도민회는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제주 토박이들과의 융합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조직 관계자는 초창기와 달리 이제는 ‘제주토박이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초기 제주 오신 호남인들은 생활 터전을 잡기 위해 왔어요. 초기 호남인들은 전라도에서 농어업을 했든지 머슴 비슷한 역할을 한 분이 많아 제주에 터를 잡고 살기 위해 왔었다고 합니다. 호남사람들만큼 부지런한 사람 없습니다. 초기 정착과정에서 없는 분들이 힘들게 살던 분들이 제주에 들어와서 살다보니 제주 사람들은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었죠. 1980년대만 해도 호남인들을 무시하는 걸 많이 느끼고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호남인들은 제주 발전의 산 증인이예요. 그건 제주사람들이 인정해야 해요. 제주사람들은 호남인들이 자기 것을 빼앗아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향사람들(호남인)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다보니 가족을 지키기 위해 좋지 않은 일을 할 때가 있어 욕을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렵게 살다보니까. 지금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옛날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버팀목이 되려고 지역 인재양성도 많이 하고 있어요.”(전남도민회 관계자, 2012. 3. 9. 심층면접).

“이제는 지역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독단적으로 ‘우리’라는 개념을 갖고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로부터 존중 받는 그런 지역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요. 이제는 수적 기득권이 아니라 포용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남도민회가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도민회 회원 수만 갖고 안주하던 시대는 갔어요. 그렇게 운영하면 재정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민회 차원에서 수익사업을 해 자본도 만들고 그것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려고 합니다. 회비로는 한계가 있고 현재 부녀회 차원에서도 지역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거나 각종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어요. 이를 통해 전남도민회가 서귀포 사회에 뿌리 깊게 들어갈 수 있는 활동을 강화시키고 있어요. 지역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길게 멀리 가기 위해서요.”(전남도민회 간부, 2012. 3. 9. 심층면접).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지역 향우회의 집행부 구성이 과거와는 확연하게 달라져 1.5세대 또는 2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두 조직 모두 2, 3세대의 발판을 찾아나가는 데 활동의 비중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민회의 한 간부는 “현재 전남도민회 구성은 기존과 차이가 있는데, 그 전에는 원로급들이 포진해 있었다면 지금은 집행부 구성원들이 전부 젊어요. 16대 전남도민회까지는 전남도민회가 지역사회에 녹아드는 마무리단계라면 17대는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시작 단계라고 봅니다.”(17대 전남도민회 관계자와의 심층면접)라고 강조한다. 이처럼 최근 들어와서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을 기반으로 한 제주시 호남향우회와 재서귀포시 전남도민회의 사회·정치적 활동 방식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한국인들의 주거지 이동을 보면 이제는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온 장소인 고향에 사는 사람들은 적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학업과 취업 등의 이유로 태어난 곳을 떠나 여러 곳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거지 이동은 전지구화와 지방화시대에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윤택림, 2008). 그런데 이러한 주거지 이동은 최근 현상이 아니라 이미 산업화시기 수도권과 대도시 및 산업도시 중심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제주 역시 관광개발과 감귤산업 성장으로 인해 이들 도시와 같은 인구유입지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산업화시기 제주로의 이주를 선택한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을 토대로 제주 이주자들의 정착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이주지의 공식기록에서 배제되거나 누락된 지역사회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주자들의 다양한 기억들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다. 이 논문은 제주의 관광개발과 감귤산업 성장 속에서 고향을 떠나 제주에 온 이주자들의 초기 정착경험에 주목하였다. 다음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 글을 끝맺을까 한다.

이 논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나는 제주 이주과정에 나타난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의 경험과 특성에 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지역의 주체로 편입되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제주에 정착한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은 정착지가 제주시인가 서귀포시인가에 따라 약간의 다른 직업경로를 갖게 되는데 이는 두 지역의 산업구조에서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착 지역에 상관없이 이주자들 대부분은 정착 초기에는 지역 저변층 일용노동자로서 생활하다가 점차 제주사회 속으로 안착해나가는 과정을 거쳤다. 이 논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은 정착 초기 높은 지역성, 강한 공동의 유대감, 빈번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공동체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모두 지닌 강력한 지연공동체를 형성해 제주사회에 적응해나갔다. 즉, 이주자들은 지연을 활용한 지역 네트워크를 향우회 조직을 통해 구축함으로써 지역적 연대를 활용해 정착지에 적응하는 전략을 구사하였고, 현재는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주체로서 자리매김한 상태다. 이러한 과정에는 지방자치제라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일정한 영향을 미쳤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제주는 전지구화, 지방화 시대에 국내외 지역으로부터 다양한 출신배경과 문화를 지닌 이주자들이 공존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논문의 분석결과는 이제 지역은 더 이상 고정되고 본질적인 개념이 아니며 어떤 지역을 만들어갈 것인가와 주민들이 어떤 지역이길 원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욕구와 이해관계와 접합되어 상황에 따라서 응집되고 분산되는 역동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것(윤택림, 2008: 339-340)을 어느 정도 시사해준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제주사회는 귀농·귀촌 바람과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인을 비롯한 이주민의 정착지원 정책에 힘입어 이주자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²³⁾. 이제 이들의 제주 이주 동기와 정착 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000년대 전후로 제주로 이주한 사람들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 간 인구이동의 특성과 그 변화 경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 논문은 산업화시기 이주자들과 토착 지역민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 양상을 고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고 제주사회에서 정치세력화과정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기 못했다는 데 한계가 있다. 이주자들은 이주 시기와 개인의 나이, 학력, 직업 경험, 경제적, 정보력, 인적 자본 측면에서 이주자들 간은 물론 토착 지역민들과 다를 수 있고, 이를 토착 지역민의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도 이 논문의 한계이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는 산업화 초기 지역개발과정에서 자신의 출신지를 떠나온 제주사회 이주자의 집중거주지 형성과 해체 사례를 제주시지역을 중심으로 다루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해야 했음에도 여기에 이르지 못했는데, 여기에는 집중거주지 거주경험을 갖고 있는 이주자들이 자신이 집중거주지 출신이라는 점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도 작용하였다. 이와 관련된 보다 심도 깊은 분석과 논의는 필자의 향후 연구과제에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앞으로 개발과 산업화과정에서 자신의

23) 귀농·귀촌 인구는 IMF 이후 증가하다가 2000-2005년 다소 정체되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시 증가했는데, 이는 웰빙 바람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정책 강화 등으로 인한 것이다 (오수호, 2011: 80), 이에 반해 제주는 2000년대 이후 계속해서 인구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들어 제주도 당국은 귀농·귀촌인 지원조례를 제정하는가 하면 이주 귀농·귀촌인들에게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는 등 이주자 정착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출신지를 떠나 서울이 아닌 또 다른 지역사회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들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7. 『1975년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인구가동 편』. 서울: 경제기획원.
- 권태환·홍두승·설동훈. 2006. 『사회학의 이해』. 서울: 다산출판사.
- 김성태·장정호. 1997. “한국 지역 간 인구가동의 경제적 결정 요인: 1970-1991.” 《국제경제연구》 3(2): 175-197.
- 김태보. 1989. “제주도 종합개발의 발전적 보완과 추진방안.” 《사회발전연구》 5: 233-249.
- 김준. 2005. “잃어버린 공동체? 울산 동구지역 노동자 주거공동체의 형성과 해체.” 《경제와 사회》 68: 71-106.
- 남영우. 1985. “도시 간 인구가동의 계량적 분석.” 《지리학연구》 10: 91-107.
- 문순덕·염미경. 2014. 『제주 이주민의 지역 정체성 정립에 관한 기초 연구』. 제주: 제주발전연구원 2014-07.
- 박세훈·이영아·김은란·정소양. 2009.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 서울: 국토연구원.
- 박승규·심광택. 1999. “경관과 기호표상을 활용한 지역학습: 수도권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34(1): 85-98.
- 염미경. 1997. “기업도시의 선거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31(3): 563-594.
- _____. 2000. “도시지역의 활성화와 정체성 정치.” 《한국사회학》 34(3): 747-782.
- _____. 2001. 『일본의 철강도시』. 서울: 경인문화사.
- _____. 2002. “기업도시의 통치, 도시체제, 그리고 성장정치.” 《경제와 사회》 53: 119-143.
- _____. 2003. “지방산업도시 성장정치의 현재와 미래.” 《경제와 사회》 60: 67-100.
- _____. 2006. “지역화와 지역정체성, 그리고 지역화교육의 방향.” 《시민교육연구》 38(2): 101-136.
- _____. 2009. “산업유산과 도시 만들기.” 《지역사회학》 10(1): 95-115.
- _____. 2011a. “개발과 이주 그리고 주거지 분화.” 《제주도연구》 35: 1-38.
- _____. 2011b. “다문화사회와 지역사회.” 김민호 외. 『지역사회와 다문화교육』. 서울: 학지사, pp. 15-37.
- 염미경·한상희. 2014. “산업화에 따른 인구가동의 특성 분석과 중학교 지역학습 자료의 구성.” 《시민교육연구》 46(2): 155-200.
- 오수호. 2011. “도시민의 농촌지향 인구가동에 관한 연구동향 1996-2010년 국내문헌을 중심으로.” 《한국 도시지리학회지》 14(2): 77-90.
- 윤택립. 2008. “과천 신도시의 주민되기.” 《지방사와 지방문화》 11(2): 307-345.
- 이상철. 1995. “제주도 개발정책과 도민태도의 변화.” 《제주도연구》 12: 71-114.
- _____. 1998. “제주도 개발정책과 도민 태도의 변화.”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2』.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99-136.
- 이창기. 1999.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대구: 영남대출판부.
- 제주노동상담소. 1992. 『일하는 사람들』. 제주: 제주노동상담소.
- 제주도. 1970. 『제주도통계연보』.
- _____. 1993. 『제주도지』. 제2권.

- 제주상공회의소. 2000. 『제주상의 65년사』.
- 제주지방해운항만청. 1989. 『제주지방 여객 및 화물수송 추세』.
- 주희춘. 2008. 『제주 고대항로를 추적한다』. 서울: 주류성출판부.
- 최병두. 2009. “다문화공간과 지구-지방적 윤리: 초국적 자본주의와 문화공간에서 인정투쟁의 공간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635-654.
- 최은영. 2004. “지역 간 인구이동의 공간적 특성 분석: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연구》 5(3): 49-66.
- 최은영·구동희·박영실. 2009.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I).”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672-589.
- 통계청. 각 년도. 인구총조사(<http://kosis.kr>).
- 통계청. 각 년도 『한국의 사회지표』.
- 한국산업사회학회. 2004. 『사회학』. 서울: 한울.
- 홍석준. 2003. “지역축계를 통해 본 지역정치와 정체성: 전남 영암, 영보 풍향계의 사례.” 《지방사와 지방문화》 6(2): 85-126.
- 홍인옥. 2001. “주거공동체와 재건축사업.” 《도시연구》 7: 75-95.
- . 2002. “지하주거의 실태와 문제점.” 《도시연구》 8: 58-96.
- . 2004. “주거빈곤계층의 주거실태와 지원방안: 비정상적인 주거를 중심으로.” 《국토》 270: 32-40.
- 황경수. 2004. 『제주교통사소고』. 제주: 온누리.
- 황석규. 1985. “도시 내 상층 이주민의 적응에 관한 연구. 제주시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Clarke, W. and Onaka, J. 1983. “Life Cycle and Housing Adjustment as Explanations of Residential Mobility.” *Urban Studies* 20(1): 47-57.
- Faist, T. 2000. *The Volume and Dynam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Traditional Social Spac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rvey, D.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Oxford: Blackwell.
- Knox, P. 1994. *Urban Social Geography: An Introduction* (3rd ed.). Longman Scientific and Technical.
- Peters, G. and Larkin, R. 2002. *Population Geography: Problems, Concepts and Prospects* (7th). Dubuque.
- Portes, A. 1995. *The Economic Sociology of Immigration: Essays on Networks,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Ravenstein, E. 1885. “The Laws of Migration.” *Journal of the Statistical Society* 53: 167-235.
- Soja, E. 1985. “The Spatiality of Social Life: Towards a Transformative Rethorisation.” in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 edited by Derek Gregory and John Urry. London: Macmillan.
- Zukin, S. 1988. *Loft Living: Culture and Capital in the Urban Change*. London: Radius.

염미경은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에 재직 중이고, 교육과학연구소장을 겸하고 있다. 도시/지역사회학과 사회·문화교육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주와 다문화 관련 국내외 지역사회 연구를 해오고 있다. 전자우편은 mgyeum@jejunu.ac.kr이다.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Immigrants to Jeju and their Settlement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of Korea Focusing on the Immigrants from the Jeolla-do

YEUM Mi-Gyeong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settlement process in Jeju of the immigrants from the Jeolla-do. The first part describes how their motivations of moving to Jeju and the settlement process reflect their experiences. The second part explores how these immigrants develop their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in Jeju communities. In particular, this paper treats the formation and dissolution of a immigrant-up town, concentrated settlements who came to Jeju in the regional development process. Based on this analysis, the paper tried to show immigrants' research direction in Jeju.

This research represent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immigrants to Jeju and their settlement process in Jeju communities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of Korea. immigrants adapt effectively to new settlements by forming a kind of concentrated settlements. Of course, these immigrants occasionally confront a variety of difficulties caused by regional discrimination. Nevertheless, most of the immigrants from the Jeolla-do keep making efforts to settle themselves in Jeju society by looking for economic jobs and developing their native place networks in Jeju society. The immigrants from the Jeolla-do had full use of strategies to adapt to Jeju communities by establishing the hometown ties organizations network. In present, immigrants have become a local social and political subject in Jeju society.

Key words: interregional population movement, immigration, concentrated settlements, hometown alumni, Jeolla-do, Jeju